

# 北 제네바 빅딜 美

모든 핵시설 연내 불능화

'테러국' 삭제...경제적 보상

북한과 미국은 올 연말까지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정치적·경제적 보상조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인 북한의 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신고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등 관계정상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에서 1~2일 이틀간 진행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성과물이 나오에 따라, 이달 중순께 개최될 북핵 6자회담 본회담에서는 '제2의 2·13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2일 오후 제네바 미국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이 2007년 말까지 그들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그들의 모든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UEP 의혹과 관련,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좋은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UEP도 전면 신고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신고 대상은 "모든 핵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불능화되어야 하는 시설들을 불능

화시키는데 것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일례로 거기에는 영변의 원자로가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회의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한 대로 우리의 핵 계획(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무력화(불능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확인했다.

김 부상은 특히 "미국측은 그들이 약속한 정치·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조(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현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 입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보상조치란 우리를 적대하는 정책을 바꾼다, 평화공존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뜻"이라며 "그 것을 해석해 보라"고 말하며 "그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일정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보상조치란 이미 공격한 대로 100만t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전진(진전)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절반은 중유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것은 발전소 재건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 美 중학생용 '세계지리' 교과서 한국측 신설...동해·일본해 병기

미국 3대 출판사 가운데 2곳인 '맥두걸 리텔(McDougal Littell)'과 '글렌코 : 맥그로-힐(Glencoe : McGraw-Hill)'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개선한 2008년 관 중학생용 세계지리 교과서를 출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은 '맥두걸 리텔'이

중학생용 '세계지리(World Cultures and Geography)' 교과서에 한국관련 단원을 신설했으며, '맥그로-힐은 '세계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맥두걸 리텔'에서 발행한 2008년 관 중학생용 세계지리 교과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단원에 '제26장 한반도'를 신설했다.

2003년판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 않은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립된 장으로 기술됐다. /연합뉴스

## “한국 약속 안 지켜...대사관 공격할 것”

아마디 탈레반 대변인 “민간인 일부 아직 안 떠나”

탈레반 대변인 격인 카리 유수프 아 마디는 2일 밤(현지시간) 연합뉴스와 간접 통화에서 한국이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카불의 한국 대사관 등 한국 관련 시설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탈레반이 인질을 석방한 뒤 나온 한국에 대한 첫 위협 발언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카불 서부에는 한국이 지원한 교육시설이 있다. 이 시설에는 한국의 지원으로 설치된 컴퓨터가 있으며 한국인 교사가 일하고 있다.

아마디는 또 "아프간 내 한국인은 어느 곳으로도 돌아다닐 수 없으며 모든 곳에 있는 한국 민간인과 관련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UPI=연합뉴스

## 피랍자 가족모임 외교부 방문

'감사의 장미' 전달...宋외교 "중요 교훈으로 삼자"

아프간 피랍자 가족모임은 3일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를 방문, 송민순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만나 피랍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기울여준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 송 장관은 "정부는 가족 대표와 협상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안타깝게 두 분이 희생이 됐는데, 전원이 무사히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돌아온 분들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뒤 "이번 일을 돌아다보니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스스로 챙겨야 하는지 되새기게 됐다.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

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방자 유정화씨의 어머니 곽옥강씨는 송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자식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힘써줘 감사하다"며 23송이 장미꽃 다발과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서명화-경석씨의 아버지 서정배(57)씨는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가 살해됐을 때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고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했었다"고 회상한 뒤 "결국 정부의 노력으로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외교부 방문에는 피랍자 가족 모임 21명이 참석했으며, 고(故) 배형규, 심성민씨 유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연합뉴스

## 법적 명백한 범위내 피랍자 구상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큰 지침을 줬고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남·북·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높아져

북-미 제네바 빅딜로 한반도 정세 급변

북한과 미국이 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연내 불능화를 고리로 한 빅딜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조짐이다.

양측의 합의는 비핵화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연내 전면신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해 서로 주고 받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그 과정은 양국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최강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우리는 준비가 됐다. 결단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적어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지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은 "한번 시도해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진심을 헤아리고 최후의 결단을 내릴 경우 한반도는 방천시대의 유물을 한꺼번에 버티던지고 평화체제로의 변환에 속도를 내는 신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9월 중순에는 6자회담 본회담이 열린다. 제네바 합의 결과를 사실상 추인하고 세부 행동계획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담은 북핵 사태가 '근원적 해결'이나 '일시 통합'이냐를 가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0월초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광양에서 개최된다. 6자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열리게 될 남북 정상간 대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체제를 본격 논의할 중요한 합의가 나올 전망이다.

10월에는 6차 외교장관회담도 성사될 전망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 이른바 4자 정상회담도 올 Herbst 또는 내년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유일하게 비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과 일본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라크 바스라공 영국군 철수 완료

이라크 남부 바스라 시내 바스라공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550명이 3일 철수를 완료했다고 이라크 군 당국자가 3일 밝혔다.

이라크 바스라 군작전 사령관은 "영국군이 2일 밤 11시 바스라공을 떠나기 시작해 오늘 새벽 4시30분 철수를 완료했다"면서 "이제 이라크 군이 바스라공 치안을 맡게 되며 관계

자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는 앞서 며칠 내로 시내 치안 임무를 이라크군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영국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바스라공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병사 550명이 당분간 바스라시에서 약 11km떨어져

있는 공군기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바스라 주변에 머물고 있는 영국군 5천500명의 철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영국군은 이라크 남동부 2개 지역에 7천명을 파견했고 현재는 바스라 공군기지와 바스라공 등 2곳의 주요 지역에 5천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영국군은 일단 연말까지 이라크 주둔군 병력을 5천명 선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런던포터AFP=연합뉴스

**늘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원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안정수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TEMPIA**  
02-646-4222, 080-701-7117

**KALTOUR**  
(위신하이행리지산업)

문의: 1577-8033

제주도 **초특가 한라산 돌핀** 배낭여행 (2인) 129,000원

제주도 **초특가 요도여행** 배낭여행 (2인) 149,000원

제주도 **초특가여명 페미 주말**

제주도 **초특가구로배여행**

**제주도** **초특가모험여행**